

# 일제강점기 간호학의 보급과 간호사 양성 정책

정은영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Dissemination of Nursing Science and Nursing Training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un-Young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간호의 주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간호 발전을 위해 현재 간호학이 갖추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일제강점기 간호의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근대 간호의 태동기인 1910년부터 1919년에는 간호교육기관이 확장되고, 간호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 1920년부터 1937년은 근대 간호의 발전기로 간호의 영역 확대될 뿐 아니라 간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개의 간호협회를 조직 하였다. 근대 간호의 정체기인 1938년부터 1945년은 전쟁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전쟁인력 동원을 위한 간호사 양성 정책이 펼쳐지면서 또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시대적 사건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정립된 간호제도는 현재 간호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간호의 영역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변화되는 간호의 역할과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일제 강점기, 간호사, 간호학, 정책, 교육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direction that nursing should have for the future nursing development by looking at the process of trying to protect the subjectivity of nursing in various ev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early days of modern nursing, from 1910 to 1919,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 were expanded and nursing-related systems were created. From 1920 to 1937, as a development of modern nursing, not only expanded the field of nursing, but also revised nursing-related laws and organized two nursing associations. From 1939 to 1945, the stagnation period of modern nursing, amidst the social disaster of war, a training policy for mobilizing war personnel was unfolded, and another change was experienced. In order to expand the field of nursing and continue to develop it, continuous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role and spread of nursing that change in various social event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re needed.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Nurse, Nursing, Policy, Educ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B8068518)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Jung(1130je@hanmail.net)

Received May 7, 2021

Revised June 13, 2021

Accepted July 20, 2021

Published July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개인이 경험한 과거는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변화와 성장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1].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통합된 사건은 역사로 기록되며[2] 이러한 역사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는 단순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갖는 다양한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현재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파악할 뿐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는 서로 공존하면서 과거는 문화와 제도를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3]. 즉 과거 간호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현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미래 간호사의 역할을 전망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간호의 역사는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공존하며 존재하였고 그로 인해 일반 역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1]. 즉 간호는 동시대 사람들의 문화, 사회적 사건, 정치, 경제와 종교 등 많은 사건들로부터 독립될 수 없으며 서로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였다. 따라서 시대적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간호가 어떠한 의미로 기록되며 그 당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변화를 예상하며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사건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해석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3]. 간호역사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발한 연구를 시작하였다[4-6].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간호역사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그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Christy[5]는 전문직의 과거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학문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이전의 과거에 발생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다각적 시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건강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간호가 필수 요소인 것은 변함이 없다[7]. 이러한 간호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여자들이 하는 직업으로 인지하면서 사회적으로 무시되거나 토속적 전통 방식에서 이루어진 미신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거부 당하였다[8].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현재 한국 간호역사 117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처음 간호가 도입된 근대 시대를 지나 급진적 변화를 이룬 일제강점기 간호의 역사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간호역사에 있어 일제강점기는 급진적 변화와 성장 뿐 아니라 좌절을 경험하면서 현재 간호 발전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라는 부정적 선입견은 서구 선교 의료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8]. 한국에서 간호는 1903년 보구녀관에서 시작되어 구녀관, 세브란스병원, 대한의원 등에서 시행되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 모두 4명의 간호사만을 배출하였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미비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간호교육기관이 세워질 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간호사 배출 및 간호 교육과정의 급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9]. 즉 본격적인 근대적 간호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에 외국 간호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10] 일제강점기 간호에 대한 연구는 한국 간호역사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간호학의 보급과 간호사 양성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사건 속에서 간호사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간호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과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과거 역사적 사건 속에서 간호사의 주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였는지 확인할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간호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는 간호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간호 관련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기 위해 역사적인 접근법(historical method)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접근법의 연

구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 과정에서 역사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로 구분한다. 일차자료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의 기록 또는 사진을 통해 묘사한 자료를 의미한다. 이차자료는 사건이나 시대적 상황을 일차적 자료를 토대로 요약하고 해석한 선행 연구나 책을 의미한다. 둘째, 다양한 역사적 자료에 대한 외적평가와 내적평가를 실시한 후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선별된 역사적 자료의 외적평가를 위해서는 기록들의 정확성과 명확성이 확실히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귀중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자료 중에 선택해야 한다. 내적평가를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기록의 일치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과 당시에 간행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서 특히 사건 발생 시기와 가장 가까운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역사적 자료의 분석에서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특징지어지는 간호 역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1].

이러한 역사적인 접근법에 대한 유의 사항을 숙지한 후 이 시기에 해당 되는 주요 일차자료로 조선총독부 관보, 대한매일신보 등의 일간지와 선교사들의 공식 보고서를 인용하였고 이차자료는 추후 일차자료를 토대로 발행된 다양한 선행연구와 책을 인용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서술하고자 하는 시대를 구분하였다. 의료·보건과 관련된 역사적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기타 여러 정부의 공식 문헌, 간호교육기관에서 펴낸 자체 자료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간호의 역사를 정착과 변화의 시기별 특징에 따라 Table 1과 같이 1910년-1919년, 1920년-1937년, 1938년-1945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

였다. 일제강점기 간호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누면서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객관적 분석을 실시한 후 그 시대에 특징 되어 지는 간호 중점 역사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본론

#### 3.1 근대 간호의 태동기 : 1910년 ~ 1919년

##### 3.1.1 간호교육 기관

조선말 시대에 실학자들은 서양 의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후 우두법과 같은 근대 의학 지식을 조선에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근대 의학이 시작되었다[7]. 이러한 근대의학의 역사와 함께 간호학도 조선말인 1903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보구녀관에서 간호교육이 시작되면서 간호 지식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9]. 보구녀관을 토대로 1906년에 미국 감리교 간호 선교사인 쉴즈가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양성소를 설립하여 간호교육을 시작하면서 간호교육 기관의 체계적 확립이 이루어졌다[11]. 선교사 중심으로 조선말에 설립된 간호교육기관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더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간호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은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직장여성처럼 사회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한국여성해방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하게 되었다[11]. 이렇게 사회적 변화를 제공하게 된 간호교육기관이 일제강점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환영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간호를 담당했던 의녀는 시대적으로 천민 신분의 관기였기 때문에[12] 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회적 선입견이 일제강점기에도 간호사를 천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성에게 간호교육을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험난한 과정이었다[13]. 하지만, 사회적 진출을 시작하려는 여성에게 있어서 교육과 직업은 필수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간호교육과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이 일제강점기에 꾸준히 운영되었다[1]. 일제강점기에 간호교육은 크게 3기관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간호교육은 선교사 중심의 교육기관에서 시작되었다. 세브란스 간호원양성소는 1910년에 처음으로 간호학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이론 뿐 아니라 기본간호술은 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였다[1]. 일제강점기에 선교사에 의한 간호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시작되면서 활발하게

Table 1. Stage 3 of Nursing History

Stage	Period	Main event
The quickening	1910 ~ 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tablishment of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li> <li>Making of nursing laws</li> </ul>
The generator	1920 ~ 1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pansion of nursing area</li> <li>Revision of nursing law</li> <li>Organization of nursing association</li> </ul>
The stagnant	1939 ~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ursing training for mobilizing war personnel</li> <li>Change of nursing law</li> <li>Decline of nursing organization</li> </ul>

이루어진 이유는 그 당시 여성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04년 9월 3일 세브란스병원 봉헌식을 시작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고 그 중 여자 환자가 25%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성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13].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취약계층인 여성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의료사업보다 교육사업이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예로 세브란스병원은 연합의학교육기관 설립과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교육위원회 구성 안에는 간호교육위원회를 포함시켜 간호교육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간호교육위원회는 간호사의 자격 조건, 교육과정 기준 등을 확립하면서 1913년부터 간호원 양성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하였다[13].

또다른 간호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관공립 교육기관이다. 그 중 대한의원의 교육 기능을 이어 받아 만들어진 경성의 조선총독부의원이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14]. 이곳에서 이루어진 간호교육의 수업은 3학기 과정으로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주로 일본어와 간호학을 배웠다. 주된 간호학 교육과정은 해부생리학, 봉대학, 소독법과 기계 취급법, 수술개보법, 위생학, 구급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의 정원은 각 학기 20명이었다.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 25세 이하의 한국인 여성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입학 조건이 있었다[9]. 1907년 조선총독부의원이 개원한 시기에 간호인력은 산파 3명과 간호사 1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1910년 이후 간호사 수는 증가하게 되면서 간호사만 거의 60명에 이르면서 전체 직원의 69%를 차지하게 되었다[15]. 이렇게 점차적으로 간호교육기관이 발전하면서 좀 더 많은 관공립중심의 교육기관이 개설되었고 학생들은 이곳에서 일본어와 간호학을 배우게 되었다. 이후 전국 13개소의 자혜의원(수원, 청주, 공주, 전주, 광주, 대구, 해주, 진주, 평양, 의주, 춘천, 함흥, 경성)에서 간호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16]. 자혜의원에서도 교육과정은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학생 정원은 12명이었으며 입학제한의 나이는 만 17세 이상 30세 이하의 여성이었다. 간호교육 기관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서울에서는 조선총독부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에서는 자혜의원을 중심으로 관공립교육기관에서 간호교육이 이루어졌다[9].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간호교육은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립교육기관인 사립 조산부양성소에서 실시되기도 하였다[1]. 개화기 시대부터 건강을 위한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애국문화계몽 운동

가들은 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미래 나라를 책임 질 어린이들의 건강을 강조하였다[1]. 특히 임신과 해산, 모유수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17]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모자보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파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1]. 황성신문 뉴스에는 1910년 1월 9일에 발기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였고 곳에서 일반 부인을 대상으로 계몽독립운동과 모자보건의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이후 1912년 덕수궁에서 응주가 태어날 때 조산부양성소에서 산전관리와 조산을 담당하면서 더 활발하게 운영되었다[1]. 사립 조산부양성소는 자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설립 이후 약 10년간 약 20명의 한국인 조산사를 배출하였다[17].

### 3.1.2 간호제도의 시작

간호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환자 돌봄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맞는 과학적 기술을 토대로 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달리 전문인으로 인지되지 못하였다. 전문직으로 인정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과 조건 및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칙을 제도화 하는 것은 필수 요소이다[18]. 이렇게 간호사를 전문직 간호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1914년에 간호인력의 자격과 면허를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단독 규칙인 간호부규칙이 제정되었다[19]. 간호부규칙은 간호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관련 규칙으로 간호사의 자격, 면허, 시험, 신고, 벌 위반시 제재 등을 규명하였다[1]. 1914년 간호부규칙에 의하면 간호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조선총독부가 지정하는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였다[18]. 1914년에 발표된 간호부규칙은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내려진다. 부정적 해석으로는 조선총독부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간호부규칙 시행 이후인 1914년 등록된 간호사 수는 법령 시행 이전보다 60%나 감소되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하게 된 사건에 책임을 잘못 설정된 간호부규칙의 악영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간호부규칙의 대부분의 내용이 간호사의 역할 보다는 간호사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았던 부분이 컸고 간호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경찰직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지배의 의미가 강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간호부규칙이라는 부정적 의문을 제기하였다[18]. 하지만, 최초로 만들어진 간호부규칙에 의하면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운영이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간호사의 개업을 허락하지 않는 현재보다 앞선 제도라는

긍정적 해석을 받고 있다[17]. 최초의 간호부규칙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내려지지만 최초의 간호 관련 규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처음 만들어진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 하였다[1].

우리나라는 간호부 규칙에 이어 1914년 15개의 조항이 포함된 최초의 산파규칙을 공포하였다. 간호부규칙과 함께 무엇보다 산파규칙이 공포된 배경에는 조선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본인의 조선 정책을 장려하려 했던 일제의 의도가 있었다[1]. 조선총독부령 제 108호에 의하면 산파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이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자혜의원의 조산부과를 졸업하여 시험에 합격한 여성이었다. 자격시험 과목은 정규임신 분만 및 그 취급법, 정규 산욕의 경과 및 육부와 생아의 간호법, 이상 임신과 분만의 취급법, 임부·산부·육부·생아의 질병과 소독법 및 조산원의 교양 등으로 이러한 교과목은 그 이후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여성전문직인 간호사는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고[20] 여성전문직 교육을 시작한 간호학문은 일제강점기에 수준 높은 여성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분야였다[12].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정된 간호부규칙과 산파규칙은 면허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 3.2 근대 간호의 발전기 : 1920년 ~ 1937년

### 3.2.1 간호영역 확대

간호사의 역할이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진료 보조적인 역할에만 국한되었던 초기와 달리 1920년 부터는 보건간호라는 이름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다. 보건간호는 선교회 간호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주된 역할은 퇴원한 환자의 후유증 관리, 저소득 노인 가정방문, 가정에서의 보건교육, 구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7]. 이러한 보건간호는 1920년대 태화여자관의 로벤저저, 공주의 보딩, 인청의 코스트립을 중심으로 선교회에서 본격적인 보건간호사업을 실시하였다[17].

보건간호 뿐 아니라 동시대에 아동보건에서도 간호사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간호부회보에 의하면 태화여자관의 보건간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1929년 경성의 세브란스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태화여자관 등 3개 선교회 기관이 합동으로 경성연합아동건강회를 조직하였다. 경성아동건강회는 각 병원이 인근 지역을 담당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서울시 전체에 하부조직을 건설하여 역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1차 예방을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성아동건강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10개의 사업은 건아클리닉, 산전사업, 가정 방문, 학교에서의 건강진단 및 건강강연, 어머니 모임, 목욕소, 두유 보급, 보건 회의, 1년에 1번 육아 주간 만들기이다. 1932년에는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염병 예방, 외래산부인과, 치과 등이 추가되었다. 1933년에는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나누어 만 3세까지는 아동건강부에서 담당하고 만 3세 이상은 일반보건부에서 담당하였다[21].

### 3.2.2 관련 법령 개정

1914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간호부규칙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 번째 이유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1920년대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중 기존의 교육체제와 다르게 처음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성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다[22]. 하지만 간호교육은 학문연구 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이라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인력양성으로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발전이 더디었다[21]. 이러한 사회적 부조화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문제였다. 두 번째 이유는 간호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부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 양성 관련 기준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수정이 필요했다 [1]. 마지막 이유는 일본이 문화통치라는 이름 하에 식민지 정책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그 중 간호사의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지사로 변화되게 되면서 간호부규칙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19]. 1920년대 변경된 간호부규칙은 간호사 양성을 위하여 사립 간호교육기관이 조선총독으로부터 지정을 받음으로써 시험을 보지 않고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1933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규칙 개정 후 6년 동안 간호사 수가 646명에서 1,119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16].

### 3.2.3 간호협회 조직

우리나라에서의 간호사는 먼저 선교사에 의해 보급되면서 순결 또는 봉사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문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전문직이란 자율성, 권한, 책임감의 특징을 갖추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그들이 속해 있는 전문직 단체의 합리적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된 직업을 의미한다[23]. 간호사라는 직업 역시 그 당시의 시대적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전문직으로 이미지 전환 및 성장을 위해서 간호사를 하나로 연결해줄 수 있는 조직 설립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923년에 결성된 조선간호부회와 1924년에 결성된 조선간호부협회가 가장 대표적인 간호조직이다[24]. 이 두 조직은 한국인 중심으로 형성된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 간호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조선간호부회는 일제강점기에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현재까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총회를 실시하여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조선간호부회보를 꾸준히 발행하여 간호사에 대한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내부적인 활동뿐 아니라 간호교육수준 개선을 위하여 입학자격과 수업연한을 통일 및 교재 편찬을 통해 미래의 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지속하였다[24].

### 3.3 근대 간호의 정체기 : 1938년 ~ 1945년

#### 3.3.1 관공립과 지정 간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전쟁 인력 동원을 위한 간호사 양성

1930년 들어서면서 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장기화 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간호사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할 뿐 아니라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하기 시작하였다[9]. 전쟁 현장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공립 간호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간호부의 공급을 늘리고자 1939년 도립의원 규정을 개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으면 도립의원에 조산부간호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해주, 공주, 춘천 등에서 조산부간호부양성소를 개소하여 1940년에는 간호교육을 실시하는 도립의원이 17개로 증가하였다[9].

1944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령에 의하면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은 관공립 기관 뿐 아니라 지정 간호교육기관이 있었다. 지정 간호교육기관이란 입학 자격과 수업 연한에 있어 조선간호부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습병원이 있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지정 간호교육기관은 1914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에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면서 25년 동안 총 10개로만 운영되었지만,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인 4년 동안의 짧은 기

간에는 9개가 더 증가 되었다[9]. 이 시기에 정부의 주도 하에 간호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자연스럽게 간호교육 기관 개설이 많아지고 그 결과 기존보다 많은 간호사들을 배출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1].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항목은 이 시대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간호사가 아닌 전쟁터에서 필요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수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사인 만큼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면서 강의 보다는 단순 반복 실습 관련 시간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참된 간호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간호사 양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9].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본에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교육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절대적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24].

#### 3.3.2 간호 관련 규칙의 변화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을 위한 일본제국주의가 심해지면서 일본제국의 일부로서의 조선에 통용 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간호부규칙과 산파규칙을 「조선간호부규칙」과 「조선산파규칙」으로 변경하였다[1]. 변경된 간호 관련 규칙의 가장 큰 변화 내용은 1940년대 대동아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점점 불리해지면서 언제든 필요할 때 간호 인력을 배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던 것이다. 1942년 조선관독부 기록에 의하면 조선간호부규칙을 개정하여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입학 연령을 15세로 낮추었고, 1944년에는 다시 13세로 낮추면서 간호 입학의 조건을 완화 시켰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수준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변화 보다는 전쟁을 위하여 동원 가능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적 현상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9]. 또한 간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간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다. 그 결과 간호교육이 간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아닌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양적 증가만을 목적으로 실시되면서, 간호교육은 자연스럽게 퇴보되어 갔다[25].

전쟁이 점점 확대되면서 전쟁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은 필수 요소가 되었고 이를 위하여 일본은 「의료관계자 징용령」과 「의료관계자 징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징용 영장을 받은 간호사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14].

### 3.3.3 조선간호부회의 쇠퇴

1923년에 결성된 조선간호부회는 꾸준한 활동을 하면서 조직의 정비와 교육 수준을 향상 시킨 후 국제간호협회(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조선간호부회의 이름으로는 ICN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시대적 현실에 좌절하게 되었다. 열악한 조선의 간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제적 인정과 협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 회원들에게 이러한 결과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ICN 가입을 위해 조선간호부회와 일본간호부협회가 논의한 결과 일본제국간호부협회를 결성하여 1933년에 ICN 회원 자격을 승인 받았지만 추후 조선간호부회는 일본제국간호부협회의 산하단체가 되면서 조선간호부회는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쟁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해지면서 조선간호부회를 지도하면 주된 역할을 하였던 선교사들이 떠나게 되면서 상황은 더 힘들어졌다[24].

## 4. 결론

기존 전통 한의학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진 시대에 간호사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간호교육이 전문적으로 실시되면서 간호학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11]. 우리나라 국민은 일제강점기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시대적 아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암흑기에서 간호는 소외계층에게 보여주었던 희망과 복지였고 여성에게 사회적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악조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간호의 보급과 양성 정책의 노력은 미루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의 간호 교육은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는 선교사나 일본에 의해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정책이나 교육과정 등이 변경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현 시대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간호 발전에 긍정적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건강 유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정립한 간호 제도는 현재까지 간호 관련 법률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던 간호의 과거 역사는 현재의 전문직 발전과 진보의 잠재적 근원이 되었다. 현재 간호학은 학문적 독자적 이론과 체계가 구축되었고 간호사 이미지는 봉사 및 전문직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거부터 시작된 전문직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토대로 추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현재 여성의 대표적 전문직이면서 타학문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고유한 힘을 키워나가며 역할을 확대 할 뿐 아니라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 간호사의 새로운 역할이 제시되고 추후 미래 사회에서 학문적 단독의 역할이 아닌 타학문과의 협업과 팀별 공동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간호사는 간호의 본질적 개념을 잊지 않고 총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시대적 사건을 통해 간호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간호 발전 방향에 대한 초석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동시대 간호교육에 영향을 주었던 타학문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일제강점기에 간호 영역 뿐 아니라 사학, 의학, 종교학 등 타학문에 의한 변화도 확인 할 수 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제언한다.

## REFERENCES

- [1] Y. J. Lee. (2006). *Introduction of Modern Nursing to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 A. L. Austin. (1958), *The Historical Method in Nursing*. *Nursing Research*, 7(1), 4-9.
- [3] E. Y. Jung. (2020). Awareness of Epidemics and Convergence Role of Nurse During the Modern Society(1876-1845) in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3), 19-26. DOI : 10.17703/JCCT.2020.6.3.19
- [4] J. Ashley. (1978). Foundations for scholarship : Historical research in Nursing. *Advance Nursing Science*, 1, 25-36.
- [5] T. E. Christy. (1978). *The hope of history. Historical studies in Nursing*.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6] L. E. Notter. (1981). The case of for historical resear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Health*, 4, 227-228.
- [7] E. Y. Jung. (2019). Healthy Representation through New Novel -Through the concept of Hygiene and Illness, Awareness of Health Professional, and Self Care-. *The Journal of History*, 36, 99-122.  
DOI : 10.31552/jh.2019.06.36.99
- [8] J. C. Lee. (2000). Humanistic View on Nursing Discourse and Practice. *Journal of Nursing query*, 9(2), 9-17.
- [9] G. M. Yi & J. H. Park. (1999). Official Nursing Education of Korean Under Japanese rul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5(2), 317-336.
- [10] G. M. Yi. (2000). Introduction and Policy of Modern Nurs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9(2), 105-106.
- [11] M. Y. Yoon. (2017). A Pioneer of Korean nursing, Elizabeth J. Shepping's Nursing Missionary Work.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4), 107-115.  
DOI : 10.17703/JCCT.2017.3.4.107
- [12] S. D. Oak. (2012). Identities of Early Modern Nursing and Education in Korea: Margaret J. Edmunds and the First Nurses' Training school in Korea,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36, 185-227.  
DOI : 10.18021/chk..36.201203.185
- [13] Ch. Y. Lee, Y. H. Cho, K. S. Ko & J. A. Kim. (2011). Foreign Nurse Missionaries starting Yonsei Nursing Schoo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44-51.  
DOI : 10.5977/JKASNE.2011.17.1.044
- [14] G. M. Yi & S. I. Hwang. (1997). Nursing in modern hospital in Korea: 1885-1910.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6(1), 55-72.
- [15] J. H. Lee. (1997). *Physician education activities under th Japanese invasion: Focusing on the early 1900~1945*.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16] G. M. Yi. (1999). *A Study on Korean Nurs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7] G. M. Yi & H. J. Kim. (1999).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0(2), 455-466.
- [18] Y. S. Yoon. (1992). *A Study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Nurses as Korean Female Profess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9] G. M. Yi & H. J. Kim. (1998). The "Nurses Ordinance" Korea under Japanese Ru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9(2), 291-302.
- [20] Jin, L. H. & Kim, M. Y. (2014). Women Nurses'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 Historical Research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20(4), 455-467.  
DOI : 110.11111/jkana.2014.20.4.455
- [21] S. Y. Hong. (197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 Administr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3(2), 1-14.  
DOI : 10.4040/jnas.1973.3.2.1
- [22] S. W. Lee. (2000). History of Korean Nursing Education (1900-2000).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2), 303-326.
- [23] E. Y. Choi. (2018).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249-259.  
DOI : 10.17703/JCCT.2018.4.4.249
- [24] G. M. Yi. (2000). A Study on Two Nursing Organization: Choseon Ganhobooohoi Tried to Improve the Standard of Nursing and Choseon Ganhobooohyophoi Tried to do Social. *The Journal of Korean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6(3), 421-429.
- [25] M. S. Kim, Y. S. Kang, I. H. Kang & H. J. Moon. (2003). *History of Nursing*. Hyunmoonsa. Seoul.

## 정 은 영(Eun-Young Jung)

[정회원]



- 2003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재난-안전, 의료법규, 간호역사
- E-Mail : 1130jey@hanmail.net